

## 韓國林學의 危機

崔 玟 休

林業研究院長

尊敬하는 全尙根 韓國林學會 會長님, 尹鍾和前 韓國林學會 會長님, 朴泰植 韓國林政研究會 會長님, 그리고 林學會 會員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평소 우리 林業과 林學에 대한 저의 소박한 생각을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임학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임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곧 우리 임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의 反語的 表現입니다. 임업이 없는 곳에 林學이 있을 수 없습니다. 林學은 바로 林業學이기 때문입니다.

國土綠化이후 오늘날 우리 林業現實을 살펴본다면, 진실로 뜻 있는 이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充分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국토의 65%라는 거대한 짐을 진 채, 한국임업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木材自給率 5%, GNP 占有率 0.2%라는 두 가지 指標가, 우리 林業의 모든 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造林面積도 해마다 減少하고 있고, 林業投資面에서도 國家의 山林管理豫算으로 명맥을 유지할 뿐, 山林의 71%를 占하고 있는 民間部門의 自發的 投資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외형상 綠化만 시켰지, 어린 山林資源을, 間伐 한 번 가지치기 한 번 제대로 손대주지 못하고, 오히려 造成된 資源이 황폐화되고 있는 現實입니다. 國民所得 1萬弗시대를 구가하는 시민들은, 이른바 삶의 質을 높이려고, 자연을 찾아 山으로 오르는 데, 정작 그 山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主人들은, 다투어 山을 내려오고 있는 판입니다. 林業에 투자할 資本이 내려오고, 勞動이 내려오고, 山主들의 관심이, 山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흔히들, 山林은 있되 林業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과고 앞에 農業도 죽을 판인데, 하물며 林業이야 어찌겠느냐고 지레 自暴自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林業現實이기도 합니다.

尊敬하는 韓國 林學會 會員여러분, 옛 속담에도 궁하면 통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林業을 되살릴 수 있는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祖國의 林業이, 이처럼 맥없이 주저앉는 꼴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괴로운 문제를, 우리 책상 앞에 올려 놓고, 다함께 反省해 보자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35년이 된, 우리 韓國林學의 모습을, 한 번 더듬어 봅시다. 흔히들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우리 林學의 오늘의 모습은 아닐까요. 800여 林學會員은 많지만, 각기 육종학이다, 조림학이다, 측수학이다 하는 전문분야에만 매달린 나머지, 눈을 들어 韓國의 林學 또는 韓國의 林業 전체를 洞察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을까요. 그 결과 오늘날 林學만 있지, 林業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냉정히 反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살피건대, 무릇 林學은 本是 應用科學이므로, 그 나라가 處한 特殊性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應用植物學이라 할 수 있는, 自然科學爲主의 林學을 『山林學』이라 부르고, 편의상 第1林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治山綠化期間을 통한 林學이 그 代表的인 例가 될 것입니다. 국토가 녹화되면, 필연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山林으로부터 木材 등을 생산하여, 經濟利益을 追求하려는 단계에 들어가게 마련이며, 이렇게 應用經濟學을 加味했을 때의 林學을, 우리는 『林業學』이라 부를 수 있고, 이를 편의상 第2林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獨逸, 日本, 美國 등 歐美先進林業學이란 모두 이러한 범주에 屬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國際動向을 보면, 地球環境時대를 맞이하여 第3林學이라 할만한 『環境林學』이 활발히 形成되어 가고 있습니다. 世界 2次大戰이

끝나고 20世紀 후반기에 접어 들면서, 世界各國은 다투어 經濟開發을 서두른 결과, 地域環境은 심각하게 汚染되어 갔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UN 人間環境會議과, 1992년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UN 環境開發會議에서는, 工業化를 억제하고, 世界 林學과 世界 林業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래의 林業學에 環境要素와 人文科學의 要素까지 덧붙였을 때, 이러한 林學을 우리는 『環境林學』 또는 第3林學이라 할 만 합니다.

우리 韓國의 林學은, 과거 治山綠化期에는, 山林學이 林學의 主流를 이루어 왔고, 國土綠化事業에도 山林學者들이, 主導的인 役割을 담당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 山林學 中心의 林學에서는, 教育面에서도, 단순히 林業技術習得을 爲한 『손』 教育과, 그 理論 開發을 위한 『머리』 教育에 머무르지 않고, 指導者로서 지녀야 할 德性교육과, 『가슴』 教育도 강조되어 왔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特히 이 後者の 側面을 가리켜, 『林業理性』 또는 『林業人精神』이라 불리, 韓國 林學의 精神面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韓國林學會가 草創期였던 時機에, 위와 같은 林業人精神을 發揮하여, 國土綠化를 主導하고 完遂에 이르게 한 事例을, 第1世代 林學者 故 玄信 圭博士의 行蹟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공이 林木育種學이면서도, 當代의 山林學者로서, 극심했던 國土의 荒廢相을 보시고 『肺病3期』라 診斷하고, 『落葉採取禁止』 등 가장 現實的인 處方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全國土를 뒤덮고 있던 붉은 산과, 江마다 범람하던 붉은 洪水가, 마치, 醫者의 눈에는, 肺病患者가 吐해내는 咯血로 보였을 법도 합니다. 當時의 醫術로는, 肺病4期부터는, 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믿었던 시기였으므로, 國土綠化의 희망을 일깨우는,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기 위하여, 肺病3期라 규정하고, 온 세상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處方으로서, 山으로부터 당분간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所信에서, 가장 손쉬운 격리 수단인, 落葉採取 禁止라고 판단하고, 이를 힘주어 외쳤던 것입니다. 山에 낙엽이 쌓이고 나서야, 山林保護의 효과도 나타나고, 造林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國土는 肺病3期요, 처방은 낙엽을 굵지말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처절했던 曠野의 외침은, 온 국

민의 가슴마다에 메아리치게 했고, 굵기야는 統治權者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때마침 불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바람을 타고, 國土綠化運動은 燎原의 불길처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전국토를 누볐습니다. 실로 우리 林業人 精神이, 전국민의 愛林綠化運動으로 승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政府는 서둘러, 入山 統制를 통해, 落葉採取를 禁止시켰고, 林産燃料의 自給基盤을 만들기 위해, 마을 단위 共同燃料 林을 造成했으며, 봄철이면, 國民 植樹期間을 설정해, 전국민이 개미처럼 山에 올라 나무심기에 나섰습니다. 범국민적 國土綠化運動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차츰 붉은 산은 줄어들고, 國土는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篤林家를 골라, 綠化의 英雄으로 추켜세우기도 하고, 造林王을 뽑아, 훈장도 달아 주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山河는 새로이 잔쉴이 우거지게 되자, 거기에 먼저 곤충이 모이고, 산새가 날아 들고, 들짐승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荒涼했던, 우리의 自然은, 날로 날로 完成되어 갔습니다. 이제 비가와도 山골짜마다 흘러내리던 빗물이 멎었습니다. 붉은 강물이 맑아졌습니다. 산골짜기 여울에는, 어디서인지, 모습을 갖추었던 물고기도 되돌아 왔습니다. 江山을 찾는 사람마다, 또다시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林業人 모두가 綠化運動에 東奔西走하고 있던 어느날, 이웃나라 신문기자들이, 비행기 위에서 어느새 푸르러진 우리강산을 내려다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 붉었던 山들이, 어느새 이렇게 푸르러졌는지, 綠化의 記적을 취재하기 위해, 대규모 기자단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韓國의 綠化 스토리』야 말로, 漢江의 奇蹟중의 奇蹟이라고, 신문 1면에, 천연색 사진과 함께, 10여일간 시리즈로 大書特筆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林業人들은 그 외국신문을 읽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어이 해냈다는 것을, 錦繡江山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UN 食糧農業機構도, 韓國의 國土綠化 成功事例를 全世界에 소개하면서, 開途國의 示範事例임은 물론, 2次大戰 이후 최단시일간에, 완전히 國土綠化成功을 이룩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기네스북감이라는 찬사였습니다. 실로 당시 韓國의 林業人들은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맛 보았고, 그 배후에는 韓國 林學이, 韓國 林業人 精神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江山의 肺病3期는 이렇게 完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일입니까. 당대 林業人 精神의 상징이던 玄信圭博士는, 줄지에 와병설이 있더니, 얼마후에 홀연히 세상을 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이 나라의 國土綠化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가, 그 임무가 완성되자마자, 훌쩍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로써 韓國 林學의 1세대는, 그렇게 莊嚴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파란만장한 一生을 마치게 됩니다. 나는 韓國 林學의 精神史的 意味에서, 韓國이 낳은 第1世代 山林學者 玄信圭博士께서 활약했던, 그 기간을 『國土綠化期』라 부른다면, 1986년 11월 21일 그분이 臨終했던 그 해 丙寅年을, 『國土綠化完成의 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會員 여러분! 韓國 林學의 危機는, 정작 國土綠化成功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10여년간은, 韓國 林學에 있어서 精神史的 空白期가 아니었다 여겨집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國土綠化時代가 가면, 다음 林業時代가 이어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 林學은, 山林學으로부터, 林業學으로 과감히 變身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 林業理性, 참 林業人 精神이 있었다면, 1980년대부터 새 時代精神이 잉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韓國 林學은, 그것을 失敗하고 말았습니다. 國土綠化의 熱氣를, 林業發展의 熱氣로, 연결시키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韓國 林學은, 山林學에 成功하고, 林業學에 失敗한 셈입니다.

그런데, 199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 林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東西冷戰이 끝나면서 地球環境問題가, 國際政治의 톱 이슈로 등장하였고, UN 全會員國은 滿場一致로, 그 根本的 解決策으로, 世界工業을 억제하고, 世界 林業을, 크게 振興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나라의 林業은, 環境産業으로서 새로운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고, 世界 林學도 環境 林學으로 變身하면서, 環境과 經濟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經濟理論을, 導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카고大學, 코-스교수의

이른바, 코-스定理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1992년 UN 環境開發會議, 『山林原則 聲明』과, 『議題21』에서도, 이 理論에 입각한 環境政策을 채택한바 있고, UN 회원국들은 다투어 이를 國歌 環境 林業政策으로, 制度化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韓國 林學은, 1990年代의 地球環境時代를 맞아, 第3의 林學, 『環境 林學』을 개발하는데 또한 失敗했습니다. 그러므로, 韓國 林學은, 第1 林學으로서의 山林學이, 國土綠化에 成功을 거두었을 뿐, 1980年代에 第2 林學, 卽 林業學으로 변신하지 못했고, 1990年代에 第3 林學, 卽 環境 林學으로 탈바꿈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韓國 林學의 危機의 本質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危機는 危機라고 自覺하는 순간, 機會로 變換시킬 수 있는 것이 人間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20世紀 後半을 살아온, 우리들 當代의 林學人, 綠化의 主役들은, 綠化의 영예속에 安住하고 있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綠化 後의, 오늘날 韓國 林業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直視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茫茫大海의 一葉片舟와도 같은, 韓國 林業의 모습은, 저라리 瀕死상태요, 恐慌狀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험덕거리는 韓國 林業의 가슴에, 聽診器를 대어 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韓國 林業의 病原體를 찾아내어, 확실한 診斷을 내리고, 그 生理法則과 病理法則에 따라, 구체적인 處方을, 내 놓아야 합니다. 마치 國土綠化期에, 先代의 山林學者, 玄信圭博士께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500여년전, 東方의 聖醫 許浚이, 한국인 體質을 위해 『東醫寶鑑』을, 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에 또다시 失敗한다면, 韓國 林學은, 영원히 虛像일 뿐입니다. 800명 회원이 8000명이 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金科玉條와 같은, 韓國 林學會誌가, 1년에 네번 아니라, 마흔 번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文字 그대로 死後藥方文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韓國의 林學은, 또다시 荒涼한 曠野에, 큰소리로 第2의 國土綠化運動을 先唱해야 합니다. 第2의 國土綠化運動은, 第1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第2의 國土綠化運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오늘날 韓國 林學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믿습니다.

尊敬하는 全尙根會長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

바야흐로 20世紀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韓國林學도, 벌써 青年期를 지나, 壯年期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第1林學을 통하여, 國土綠化에 成功하고도, 第2林學, 第3林學의 變身에 실패했던 한국林學은, 새 會長님 地圖아래 하루속히 이 危機狀況을 벗어나서, 새로운 跳躍의 길로 나서야 할 줄 압니다.

韓國林學은 어디로 갈 것인가?

20世紀를 마무리 짓고, 21世紀를 준비하려는 이 순간, 저는 감히 우리 800명 會員 여러분께, 이 큰 물음을 제기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새해 丙子年에도, 會員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